

법화천태학에서의 유행(遊行)과 걷기

- 전거(典據)를 중심으로 -

영신스님(이기운)*

- I. 서언
- II. 법화경 유행설법(遊行說法)으로 본 걷기
 1. 장자궁자(長者窮子)의 유행과 걷기
 2. 화성유(化城喻)의 유행과 걷기
- III. 천태학에서의 유행(遊行)과 걷기
 1. 오시교판(五時教判)과 유행설법
 2. 원돈지관(圓頓止觀) 사종삼매(四種三昧)에서의 걷기수행
- IV. 결어

■ 한글요약

이 연구는 법화학(法華學)과 천태학에서의 걷기에 관한 전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법화경에서는 삼주설법(三周說法) 비유설(譬喩說)에서 걷기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비유설은 법화경 법설(法說)에 대해서 중생의 성품과 능력에 맞추어 다양한 비유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부처님이 장자(長者) 인도자(導師) 등으로 등장하여 유행하면서 설법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걷기는 이러한 유행설법에서 보인다. 먼저 장자궁자의 비유(長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조교수

者窮子喩)에서는 장자가 궁자인 중생을 다섯 때로 유행하며 제도한다고 하여 천태(天台)는 오시교판(五時教判)의 근본으로 삼았다. 또한 화성의 비유(化城喩)에서는 오백유순의 거리에 있는 보배성으로 대중을 인도하는 인도자(大導師)가 되어 중생들을 불도로 인도하는 유행설법을 보여준다.

천태학은 교문(教門)과 관문(觀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시교판과 원돈지관(圓頓止觀)의 사중삼매(四種三昧)에서 걷기를 기반으로 한 교학과 수행법을 다루고 있다.

교문의 오시(五時)에서는 불교의 대소승 교학을 부처님의 일대성교(一代聖教)로 보아, 적멸도량(寂滅道場)에서 정각(正覺)을 이루고 쿠시나गर에서 열반(涅槃)에 들 때까지 다섯 때로 나누어 오시(五時)의 유행설법이라 하였다. 후대에는 오시설법 계승에서 부처의 일대설법으로 구체화하거나 역사적 사실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관문의 사중삼매에서는 상행삼매법(常行三昧法)에서 염불하면서 걸어서 본존을 도는 수행에서 걷기가 중요한 삼매행법으로 수용되었다. 또한 반행반좌삼매법(半行半坐三昧法)에서는 주송(呪誦)하면서 도는 방등삼매(方等三昧)법과 경을 독송하면서 경단(經壇)을 도는 법화삼매법(法華三昧法)이 있어서 역시 걷기가 수용되었다. 이밖에 비행비좌삼매법(非行非坐三昧法)에도 행도(行道) 좌선(坐禪)뿐만 아니라 일체에 통하는 행법으로 걷기가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중삼매법에는 상좌삼매법(常坐三昧法)을 제외한 3가지에서 모두 걷기 수행을 포함하여 원돈의 실상을 깨닫는 수행을 하고 있다.

주제어 ● 유행설법, 걷기, 천태학, 오시, 상행삼매

I. 서언

본고는 법화경과 천태학에서의 걷기에 관한 전거(典據)를 고찰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먼저 대승경전 『묘법연화경』에서 그 전거를 고찰하고, 이어 천태학의 두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문(敎門)과 관문(觀門)을 고찰하고자 한다.

경설의 걷기는 『묘법연화경』 「신해품」 장자궁자의 비유[長者子喩]와 「화성유품」의 화성의 비유[化城喩]에서 장자(長者)와 대도사(大導師)의 유행(遊行)을 중심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천태의 교문과 관문에서는 교문의 근간이 되는 교판론 오시(五時)에서는 부처님이 적멸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녹야원으로 유행하여(而遊鹿苑) 아함경을 설하였다고 하므로, 오시를 부처님의 일대(一代) 유행설법으로 보는 천태 교판의 입장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관문에서는 원돈지관의 수행법인 사중삼매에서 상좌(常坐)·상행(常行)·반행반좌(半行半坐)·비행비좌(非行非坐)의 네 가지 위의(威儀)가 들어 있는데, 이 중에서 걸으면서 하는 수행으로 상행삼매·반행반좌삼매·수좌의삼매가 주목된다. 이들은 삼매수행 자체가 위의를 걷으면서 하는 수행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II. 법화경 유행설법(遊行說法)으로 본 걷기

대표적인 대승경전이고 천태학의 소의경전인 법화경에서는 유행(遊行)으로 인도하는 교화설법을 보여주고 있어서, 걷기가 다양한 설법 속에 교화행의 한 모습으로 들어 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가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방편을 열어서 진실로 인도하는 큰 뜻을 법설·비유설·숙세인연설의 삼주설법(三周說法)으로 펴고 있다. 이 중에서 비유설에서는 이른 바 법화칠유(法華七喻)의 다양한 비유설법으로 법설을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비유설 장자궁자유(長者窮子喻)와 화성유(化城喻)를 중심으로 법화경 견기의 전거를 찾아보기로 한다. 여기에는 방편을 열어서 진실로 인도하는 대도사가 장자(長者)·도사(導師)로 등장하여 삼계 고택을 떠도는 중생들을 안락한 불도로 인도하고 있다.

1. 장자궁자(長者窮子)의 유행과 견기

「신해품」 장자궁자의 비유[長者窮子喻]에는 유행(遊行)을 통한 교화행이 나오고 있다. 이 비유는 여러마을 성읍을 떠돌아다니며[遊諸聚落經歷國邑] 품삯을 받아살아가는 궁자(窮子)를 아버지 장자(長者)가 갖가지 방편행으로, 통치는 일부터 시작하여 집안일을 맡기는 등 근기를 성숙시켜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넘겨주고 있다. 여기서 궁자는 중생을 비유하고, 장자는 부처님을 비유하는데, “궁자의 떠돌아 다님”과 “장자의 양육행”까지 다섯 차례의 유행교화에서 견기의 모습을 고찰할 수 있다.

제 1유행은 궁자가 선업(善業) 및 악업을 짓고 생사고해를 겪으면서 육도(혹은 오도)에 전전하다가 불법에 들어오게 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하여 오래 다른 나라를 머무르기를 십년이나 이십년에서 오십년이 되었다. 나이가 들도록 궁하고 가난하여 사방으로 떠돌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의식을 구하였다. 점점 유행(遊行)하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였다.¹⁾

1) 『妙法蓮華經』卷第二「信解品第四」(T9, 16b). “譬若有人, 年既幼稚, 捨父逃逝, 久住他國, 或十、二十, 至五十歲, 年既長大, 加復窮困, 馳騁四方以求衣食, 漸漸

여기서 걷기에 상당하는 내용은 공자가 사방으로 의식을 구하려고 유행(遊行)하였다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주석가 광택 법운(光宅法雲, 467-529)은 이러한 공자의 유행에 대하여 “한 걸음 이 또한 본국을 등지고…비로소 한 걸음 이 또한 본국을 향하여 돌아감을 든 것이다”²⁾라고 표현하였고, 그 뜻에 대해서 천태 지의(天台智顓, 538-597)는 “생사고를 싫어하고 해탈을 바라 샀된 열반을 구하는 것으로, 비록 본의가 아니지만 또한 부처를 만나게 됨”³⁾이라고 한다. 곧 공자가 의식을 구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어 본국으로 가는 유행은 중생들이 생사고해를 떠나 불도에 들어오는 구법의 행임을 보여준다.

장자공자 비유의 본의는 아무래도 본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온 친 아들 공자를 장자가 다섯차례에 걸친 유행으로 훈육하는 일이다. 장자가 보여주는 다섯 차례에 걸쳐 훈육에 대하여 천태는 일종의 ‘부처님 유행의 교화행’으로 보아 오시교관의 전거로 삼았다. 장자는 찾아온 아들을 자신의 본래 아들로 만들기 위해 다섯 곳을 오가면서 다섯 차례에 걸친 훈육하는데 이 과정은 부처의 출세본회에 맞게 방편을 열어 진실로 인도하는 교화법과 다르지 않다.

장자의 다섯차례 교화행의 경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내가 항상 이 아들 생각을 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었더니 문득 스스로 찾아오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곧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 급히 쫓아가 데려오라고 시켰다. 그 때 사자가 빨리 달려가서 그를 잡으니 아들이 놀라서 원망하여 크게 외쳤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어찌서 잡는가’⁴⁾

遊行, 遇向本國.”

- 2) 法雲, 『法華經義記』 卷第五(T33, 634c). “漸漸遊行遇向本國者……一步此亦是背國, ……始舉一步此亦是向國而歸”.
- 3) 『法華文句』 卷第六上(T34, 81a). “明其厭苦 希脫邪求涅槃, 雖非本意亦蒙值佛, 故云「遇向」也”.
- 4) 『妙法蓮華經』 卷第二「信解品第四」(T9, 16c). “我常思念此子, 無由見之, 而忽自來, 甚適我願. ……即遣傍人, 急迫將還. 爾時使者, 疾走往捉. 窮子驚愕, 稱怨大

② 장차 그 아들을 유인하려 하여 방편을 시설하여, 비밀히 두 사람을 보내니, 형색이 초췌하고 위엄이 없는 자였다. 너희는 저기 가서 궁자에게 천천히 말하라 여기에 일자리가 있으니 네 샅을 배로 주리라하고 만약 궁자가 허락하거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라. 만약 어떤 일을 하느냐고 하면 말하되 너를 고용하여 똥을 치울 것인데 우리들 두 사람도 또한 함께 일한다고 하라.

③ 이 시일이 지난 후에 마음이 서로 믿게 되어 친해져서 들어오고 나감이 어려워 하지 않았으니 그가 머무는 곳은 여전히 본래 있던 곳이었다.

④ 장자는 병이 있어 스스로 오래지 않아서 죽을 것을 알고 궁한 아들에게 일러 당부하였다. 나에게 지금 많은 금 은과 진기한 보배가 창고에 가득하니 그속에 있는 재물의 많고 적음과 받을 것과 줄 것을 너는 모두 알아두어라. 나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이 뜻을 받아서 처리하라. …그 거처는 여전히 본래 있던 곳이었다.⁵⁾

⑤ 다시 얼마의 시일이 지나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이 자츄 뚫려 편안해져서 큰 뜻을 성취해 스스로 그 마음이 비열하였음을 알고 임종할 때를 당하여 그 아들에게 분부하여 친족과 국왕과 대신과 왕족과 거사를 모이게 하고 스스로 선언하였다. … 어느 성중에서 나를 버리고 달아나 갖은 고생하기 오십여년 그 본이름은 아무개요 나의 이름은 아무개요. 예전에 본 성에서 근심하여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 지금부터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다 이 아들의 것이며, 먼저 출납하던 것도 이 아들이 알아서 할 바입니다.⁶⁾

① 제1의 유행에서는 궁자가 유행으로 찾아와 장자가 교화한 내용이다. 궁자가 찾아온 장자의 모습은 사자좌에 앉아 있고 보배상자에 발을 올려

喚：‘我不相犯，何為見捉？’”。

- 5) 『妙法蓮華經』卷第二「信解品第四」(T9, 17a) 世尊，爾時長者有疾，自知將死不久。語窮子言：『我今多有金銀珍寶，倉庫盈溢，其中多少，所應取與，汝悉知之。我心如是，當體此意…然其所止故在本處』
- 6) 『妙法蓮華經』卷第二「信解品第四」(T9, 17b), “復經少時，父知子意漸已通泰，成就大志，自鄙先心。臨欲終時，而命其子并會親族、國王、大臣、刹利、居士，皆悉已集，即自宣言…於某城中，捨吾逃走，伶俜辛苦五十餘年，其本字某。我名某甲，昔在本城懷憂推覓，忽於此間遇會得之。此實我子，我實其父。今我所有一切財物，皆是子有，先所出內，是子所知”。

놓고 큰 세력이 있으며, 보배장막으로 치장하고 보물을 늘어놓아 내고 들이며 위덕이 존특하다고 하고 있다. 『법화문구』에서는 이러한 장자의 모습을 노사나특신(盧舍那特身)의 승응신(勝應身)에 보살이 응화한 것이라 하고, 법신의 원돈을 밝힘이 화엄경과 같으며, 에워싼 권속들은 화엄경 중의 권속을 가리킨다⁷⁾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법화현의』 신해품 인용조에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처음에 성불하여 적멸도량에서 법신대사와 사십일지위의(보살)권속들에게 둘러싸여 원돈의 교문을 설하였다.”⁸⁾라고 한다.

이에 비해서 아들은 사방에 의식을 구하는 궁자의 처지이므로 쫓아와 데려가려하자[傍追] 원망하여 소리쳤다[稱怨大喚]고 한다. 이는 대승교로써 아들을 대하니 이런 교화라면 근기가 생소하여 기절하고, 마치 이승들이 귀머거리나 병어리와 같았다고 하여 천태학에서는 의의(擬宜, 시험 삼아 설한 법문)의 법문이라고도 한다. 『천태사교의』에서는 화엄돈교의 교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화엄시의 취지라고 한다.

② 제2의 유행에서는 장자가 사자를 시켜 놓아주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隨意所趣]고 하고, 이번에는 초췌하게 생긴 두 사람을 비밀히 보내어[密遣二人], 두 사자가 궁자를 찾아내어[二使人即求窮子] 똥치는 일을 시키도록 한 것은 대승의 근기가 약함을 알고 대승의 교화를 그친 것이 근기에 들어맞았음을 말한다.⁹⁾ 궁자가 데려와서 똥치는 일을 시킨 것은 『법화문구』에서는 고집(苦集)의 똥을 치어 도멸(道滅)의 샅을 취한 것이라 하여 아함의 설법으로 교화함을 보여준다. 장자는 다른 날 창으로 궁자를 보고 자신도 영락과 상등의 옷과 장신구 등을 벗어놓고 때묻은 옷을 입은 후 방편으로 그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부지런히 일하라¹⁰⁾고 하였다. 천태

7) 天台智者述, 李元燮譯(1997), 1101.

8) 『妙法蓮華經玄義』卷第十下(T33, 808b). “三引信解品…此領何義? 領初成佛, 寂滅道場, 法身大士四十一地眷屬圍遶, 說圓頓教門”:

9) 李元燮譯, 위의 책, 1118.

의 『법화현의』 신해품 인용조에서도 “방편으로 그 아들에게 가까이 감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돈교 이후에 노사나불의 위덕을 갖춘 상호를 숨기고 노비구의 모습으로 삼장교를 설한 것이다. 이십년 중에 항상 변을 치우고는 하루의 대가를 받은 것이다.”¹¹⁾라고 하여 돈교 설법후 방편으로 유인하는 점교의 교화행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천태사교의』에서는 제2녹원시의 4아함부 설법이라고 하였다.

③ 제3의 유행에서는 궁자가 장자의 집안일을 하면서 친해져 부자간 민음이 생긴다는 내용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므로 도과를 얻어 헛되지 않음이며, 아버지도 아들을 믿으므로 대승을 듣고 비방하지 않게 됨을 뜻한다. 소송이 교에 순종하여 수행하므로 방등부의 보살법을 듣고도 마침내 대승을 비방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한다. “출입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이로 인하여 대승의 높고 위대한 본 뜻을 보게 되어 대승교를 듣는 것은 들어감이고(入), 소송의 꾸지람을 듣고도 오히려 장육의 응신의 소송법을 보는 것이 나는 것(出)이다. 곧 이런 대소승에 출입이 자유로움을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천태사교의』에서는 심상체신(心相體信)의 소송을 가책하는[彈訶] 교설이라고 한다.

④ 제4의 유행에서는 장자가 자신의 재산을 궁자에게 맡겨서 운용해보는 내용으로, 이승들이 본래 대승을 설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어서 전교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마치 장자가 궁자에게 재산을 넘겨주었듯이 소송근기인 성문에게 부처님의 법재(法財)를 전해준 것, 곧 전교부재(轉教付財)를 가리키는 비유이다.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지만 중생구제를 위해 응신하신 부처님은 교화의 인연이 다하면 그 수명을

10) 『妙法蓮華經』卷第二「信解品第四」(T9, 18a). “長者於牖 常見其子 念子愚劣 樂為鄙事 於是長者 著弊垢衣 執除糞器 往到子所 方便附近 語令動作”에서 취의.

11) 『妙法蓮華經玄義』卷第十下(T33, 808b). “以方便故, 得近其子。此領何義? 此領次頓之後, 隱舍那威德相好, 作老比丘像, 說三藏之教, 二十年中常令除糞, 得一日之價”.

다하게 되니 반야의 회상에 와서 그 대상인 성문중이 점차 그 근기가 순숙하여 일불승을 깨달을 때가 멀지 않아 부처님의 화연이 다한 것이요, 이를 장차 죽음이 오래지 않다고 비유했다. 『천태사교의』에서는 장자가 위지(委知)하여 이승은 도태(淘汰)하는 교설이라고 한다.

⑤ 제5의 유행에서는 『천태사교의』에서는 “반야 이후에 다음 법화를 설함이다. 먼저 이미 창고의 모든 물건을 알았으므로 임종할 때에 직접 가업을 맡긴 것뿐이다. 비유하면 앞에서 전교하여 법문을 다 알았으므로 법화를 설할 때에 개시오입(開示悟入)하여 불지견에 들어가게 하여 수기하여 부처가 되게 할 뿐임을 비유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업(付業)으로 장자의 모든 법재를 넘겨받고, 부자간의 본래의 진실을 밝혔으므로 법화경의 취지에 따라 개현(開顯)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다섯번의 유행을 종합해 보면, 첫째는 아들이 찾아와¹²⁾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 급히 데려오려고 하지만[傍追] 궁자가 원망하고 소리치고 기절하므로, 둘째 유인하려 두 사람을 보내서 통치는 일을 하게 하고 스스로도 영락과 보배 등 장신구를 벗어놓고 방편으로 아들에게 가서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였으며, 셋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으로 서로 친해져 믿음에 생겼으나[心相體信] 아들은 여전히 문밖에 초암에 거처하며, 넷째는 아들에서 재산을 맡겨서 운영해 보도록 하고[委知], 다섯째는 가업과 재물을 다 궁자에게 물려주었다[付業]는 것이다.

결국 장자궁자의 비유는 궁자가 떠돌아 다니다가 장자를 찾아와서 장자가 궁자에게 다가가서 이루어지는 총 다섯 차례의 유행 훈육으로 그 내

12) 『妙法蓮華經』卷第二「信解品第四」(T9, 17). “譬如童子 幼稚無識 捨父逃逝 遠到他土 周流諸國 五十餘年 其父憂念 四方推求 求之既疲 頓止一城 造立舍宅… (비유하면 동자가 어리고 철이 없어 아버지를 떠나 도망쳐서 머리 타향에 이르고, 제국을 떠돌아다닌 지 50여 년, 그 아버지는 근심하여 사망으로 찾아다니다가 지쳐서 어느 성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용은 다섯 번의 걸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화성유(化城喻)의 유행과 걷기

화성의 비유[化城喻]는 법화경 삼주설법에서 인연설주에 속한다. 그 내용은 인도자가 대중들을 거느리고 멀고 험난한 오백 유순의 보배성으로 갈 때, 대중들이 험난한 길을 가다가 도중에 지쳐서 포기하려 하자, 그 중간 삼백 유순에 방편으로 화작한 성을 만들어 쉬게 한 후, 마침내 진실의 보배성으로 인도한다는 비유이다. 이 비유는 교학적으로는 방편으로 삼승을 열어 진실의 일불승으로 교화하는 개삼현일(開三顯一)의 참된 뜻을 드러낸 비유로 통한다. 대도사(大導師)가 신통으로 성(城)을 만들어 대중을 쉬게 한 다음, 다시 보배성으로 길을 나서게 하는 비유를 들어, 부처님이 먼저 방편을 펴 머물게 한 후 마침내 일불승으로 인도하심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화성유의 비유는 중생들이 걷고 있는 생사고해의 험난한 길, 보배성까지 오백 유순이나 되는 일불승도, 오백 유순의 멀고 험난한 길에 지친 중생들을 위하여 중도에 지은 삼백 유순 되는 방편의 이승도를 걸어가도록 하고 있다.

화성의 비유 대강은 다음과 같다.

i) 비유하면 ① 오백 유순 ② 험난한 악한 길 광막하고 인적이 없는 공포와 두려운 곳 ③ 만약 사람들이 많다면 ④ 이 길로 진보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나섰다고 한다면 ⑤ 한 도사가 있어서 슬기롭고 통달하여 험난한 길의 뚫리고 막힌 모양을 잘 알아서 많은 사람 이끌고 인도하여 이 험난한 길을 지나가려 하였다.

ii) 데려가는 사람들이 중도 길에서 싫증을 내어 인도자에게 아뢰기를, 다시 나아가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길이 아직 멀어서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도사가 방편이 많아서 이같이 생각하되 이들이 가없구나 어찌 큰 보배를

버려두고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같이 생각하고 방편력으로 험난한 길 중간 삼백유순을 지나서 화작하여 한 성을 만들고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두려워 하지말라. 이제 이 큰 성에 머물러 무엇이냐 뜻대로 할 수 있으니 이 성에 들어가다면 더없이 편안하며 만약에 앞에 있는 보배성에 이르려고 한다면 또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지친 무리들이 크게 기뻐해서 일찍이 없던 일이라 감탄하고 우리들 이제 악한 길 모면하고 마음껏 편안함을 얻으리라하여 이에 사람들이 나아가 화성에 들어가 이미 악한 길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여 이제 편안하다고 생각했느니라.

iii) 그때 도사는 이 사람들이 이미 휴식했기에 싫증냄 없음을 알고서 곧 화성을 없애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서 가라. 보배있는 곳 가까웁도다. 먼저 있던 큰 성은 내가 신통력으로 만든 바이니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¹³⁾

천태는 『법화문구』에서 i) 도사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들의 비유(所將人衆譬), ii) 보배있는 곳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중간에 지쳐 물러난 비유(中路懈退譬), iii) 화성을 없애고 격려하여 보배있는 곳까지 가게 한 비유(滅化引至寶所譬)로 나누었다.¹⁴⁾

i) 도사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들의 비유는 화성으로 유행하는 인도자

13) 『妙法蓮華經』卷第三「化城喻品」第七(T9, p25c-26a). “譬如五百由旬險難惡道，曠絕無人、怖畏之處。若有多眾，欲過此道至珍寶處。有一導師，聰慧明達，善知險道通塞之相，將導眾人欲過此難。所將人眾中路懈退，白導師言：『我等疲極，而復怖畏，不能復進；前路猶遠，今欲退還。』導師多諸方便而作是念：『此等可愍，云何捨大珍寶而欲退還？』作是念已，以方便力，於險道中過三百由旬，化作一城，告眾人言：『汝等勿怖，莫得退還。今此大城，可於中止，隨意所作。若入是城，快得安隱。若能前至寶所，亦可得去。』是時疲極之眾，心大歡喜，歎未曾有：『我等今者免斯惡道，快得安隱。』於是眾人前入化城，生已度想、生安隱想。爾時導師，知此人眾既得止息，無復疲倦。即滅化城。語眾人言：『汝等去來，寶處在近。向者大城，我所化作，為止息耳。』”

14) 『妙法蓮華經文句』卷第七上(T34, 101c). “就此文為三：一、所將人眾譬。譬本結緣未得度者，本緣不失，而為導師所將，同上〈火宅〉長者見火驚怖、〈方便品〉見五濁而起大悲心。二、中路懈退譬。” 참조.

의 비유로 다시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오백유순이 나 되는 험난한 길’의 비유(五百由旬譬)는 위에서 제도되지 못한 무리들이 소송법에 집착하여 오도에 윤회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둘째, ‘매우 험난한 악도’의 비유(險難惡道譬)는 위의 제도되지 않은 무리가 탐·진·치 삼독으로 물들어 있어 여래의 지혜를 믿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에 비유했다. 셋째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비유는(若有多衆譬) 천만억이 다 의혹을 일으킨 것, 곧 『법화경』 도리를 이해 못함을 비유했다. 넷째 ‘진기한 보배가 있는 곳을 이르고자 함’의 비유(欲過此道至珍寶處譬)는 일불승 불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비유한 것이다. 다섯째, ‘한 인도자의 비유(一導師譬)는 위의 십육왕자가 법화로 교화 인도함을 비유했다.¹⁵⁾

경에서는 한 도사가 대중을 이끌고 인도하는 길에 대하여 보배성까지 가는 오백 유순¹⁶⁾이나 되는 길을 일불승도, 이 보배성까지 너무 멀고 험하여 중간에 화작한 화성까지 가는 삼백 유순되는 길을 방편의 소송도(삼승도)라고 한다. 결국 보배성까지 가는 길은 법화의 취지에 따라 중생을 방편을 열어 일불승으로 인도하는 부처의 유행 교화의 길인 셈이다. 곧 화성의 비유는 난해한 법화경 개권현실의 가르침을 ‘화성을 거쳐 보배성으로

15) 『妙法蓮華經文句』 卷第七下(T34, 100b). “就初導師譬, 其文有五, 即擬(火宅)總譬、(方便)略頌中之六意也。一、五百由旬譬。譬上未度之眾樂著諸有論迴處所, 即擬(火宅)中其家廣大三界無安、(方便品)安隱對不安隱處之意也。二、險難惡道譬。譬上未度之眾煩惱垢重, 於如來智慧難信難解, 即擬(火宅)中火起、(方便品)安隱對不安隱之法也。三、若有多眾譬。正譬上百千萬億種皆生疑惑不解之眾生也, 即擬(火宅)中三十子五百人、(方便)中知眾生性欲意也。四、欲過此道至珍寶處譬。舊不取, 今取此譬譬上覆講《法華》, 擬(草喻)中一味雨、(火宅)中唯一門、(方便品)宣示佛道意也。五者、一導師譬。譬上第十六王子也, 即(藥草)中密雲、(火宅)中長者、(方便)中我今亦如是意也。” 참조.

16) 법운은 오백유순을 육계를 1백유순, 색계를 2백유순, 무색계를 3백유순 7지, 4백유순, 8지 이상을 5백유순으로 배대하였다. 光宅寺沙門法雲撰, 『法華義疏』 卷第七(T33, 654b). “譬如五百由旬者 是則依佛似火宅義。欲界如一百 色界如二百 無色界如三百。七地所斷三界餘習如四百。八地以上至金剛心所斷無明住地煩惱如五百也。” 참조.

가는 중생들과 이를 인도하는 대도사의 걷기'로 비유하여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가르침이 되었다.

Ⅲ. 천태학에서의 유행(遊行)과 걷기

1. 오시교판(五時教判)과 유행설법

천태학은 교문(教門)과 관문(觀門)으로 나누어지는데, 교문은 오시팔교(五時八教) 관문은 삼종지관(三種止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문은 교상판석을 통하여 대소승 불교학을 오시팔교로 체계화하였다.¹⁷⁾ 오시란 당대까지 중국에 들어온 전 불교 대소승 경설을 법화경의 취지에 입각하여 붓다의 일대(一代)에 베풀어진 성교(聖敎)로 보아 오시로 정리하였다. 또한 그 경교의 삼장(三藏)에 나타난 붓다의 설법방식을 중생의 근기에 따라 돈교·점교·부정교·비밀교로 베풀어졌다고 하여 화의사교(化儀四敎)라고 보았고, 그 설법 내용을 장교·통교·별교·원교의 화법사교(化法四敎)라고 하여 팔교(八敎)로 정리하였다.

오시의 교판은 대·소승 경전을 붓다의 정각으로부터 열반에 들 때까지 베풀어진 다섯 때의 설법으로 구성하고 있다. 곧 대·소승 경전이 모두 붓다의 설법이라고 할 때, 붓다가 정각을 이룬 적멸도량으로부터 열반에 든 꾸시나가라까지 유행(遊行)하여 설한 다섯 때의 설법으로 정리하였다. 오시는 제일 화엄시, 제이 녹원시, 제삼 방등시, 제사 반야시, 제오 법화열반시이다. 천태학의 오시는 대소승의 제 경전을 경전성립사와는 별개로 부처로써의 일대(一代)인 정각을 이루고 열반에 들 때까지 다섯 때의 설법

17) 『國清百錄』題百錄後序(T46, 823c). “吾祖智者大禪師。實靈山再來之人也。道傳三觀悟自一心。恢張龍猛正宗。幽贊法華祕典。判釋以五時八敎”。

으로 배대하여 설명한 교상관석의 결과이다. 오시(五時)의 유행설법에 대하여 천태학의 입문서(入門書)로 통하는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에서는 부(部)·시(時)·미(味)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돈교(頓教)란 곧 화엄경이다. 부·시·미 등을 따라서 이름을 돈교라 한다. 이른바 여래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고 적멸도량에 계시어 41위 법신대사와 속세의 근기가 성숙한 천용팔부가 일시에 둘러싸니 마치 구름이 달을 에워싼 듯 하다. 이때 여래께서 노사나신을 나투어 원만 수다라를 설하시니 그러므로 돈교라 한다.

둘째 점교(漸教)이다.(이하 삼시 삼미가 모두 점교가 된다) 다음에 삼승의 근성을 위해서 돈교가 마무리 이익이 없으므로, 적멸도량을 움직이지 않으시고 녹야원으로 가서 노사나의 보배옷을 벗으시고 장육의 떨어지고 더러운 옷을 입으셨다. 도솔천에서 내려와 마야부인의 태에 의탁하여 태에 머물다가 태에서 나와서 비를 맞이하여 아들을 낳고 출가하여 고행하신 6년 이후 목보리수 아래 풀로 자리를 삼고 열응신을 이루었다. 처음에 녹야원에 있으면서 먼저 5인을 위하여 사제 십이인연 사육도 등의 가르침을 설하였다.……18)

오시의 첫 번째 화엄시와 두 번째 녹원시가 설해진 내용을 밝힌 것으로 화엄시는 붓다가 정각을 이루고 깨달음을 얻은 적멸도량에서 화엄의 돈교를 설하여 제도하였는바, 근기가 뛰어난 이른바 법신대사로 10주 이상의 보살들을 제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화는 “지금의 석가모니 불은 석가족의 궁정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도량에 앉아 아녹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¹⁹⁾라 하고 있다.

18) 諦觀錄『天台四教儀』(T46, 774c). “初辨五時五味及化儀四教. 然後出藏通別圓. 第一頓教者. 卽華嚴經也. 從部時味等. 得名爲頓. 所謂如來初成正覺. 在寂滅道場. 四十一位法身大士. 及宿世根熟天龍八部一時圍繞. 如雲籠月. 爾時如來現盧舍那身. 說圓滿修多羅. 故言頓教. ……第二漸教者(此下三時三味. 總名爲漸)次爲三乘根性於頓無益故. 不動寂場而游鹿苑. 脫舍那珍御之服. 著丈六弊垢之衣. ……”

19) 『妙法蓮華經』「如來壽量品」第十六(T9, 42b). “今釋迦牟尼佛 出釋氏宮 去伽耶

이 회상을 보면 돈근기는 제도하였으나 근기가 낮은 삼승은 법의 이익을 얻지 못하여, 녹야원으로 가서 아함의 점교(漸敎)로써 제도하였다고 하여 제2 녹원시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문에서 “적멸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녹야원으로 가서(不動寂場而游鹿苑)”에 대한 주소(註疏)를 보면, “이것은 함께 두 가지 상(相)을 수시(垂示)하시고서, 두 가지의 시작을 동시에 하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²⁰⁾라고 하여 정각을 이룬 적멸도량에서 동시에 교화를 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때 화엄시는 노사나불의 승응신(勝應身)으로 존특(尊特)이고, 녹원시는 열응신(劣應身)의 생신(生身)이 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주소에서 “사나불의 보배로운 어의를 벗었다는 것은 이것이 대승을 쉬고, 소승을 베푸신 화의(化儀)의 순차(順次)를 밝히는 말”²¹⁾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적멸도량에서 깨달음의 경지의 설법 내용을 화엄시로 보았으며, 이 법이 대승의 근기에게는 유용하지만 삼승(성문·연각·근기 낮은 보살)에게 통하지 않아 대승을 쉬고, 응화하여 제도하게 되므로 적멸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녹야원으로 간 것은 동시라고 하였다. 곧 승응신으로 화엄을 설하고 열응신으로 녹야원에 가서 초전법륜을 굴리므로 응신 부처님의 일대 설법이 유행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때의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지금의 석가모니불은 석가족의 궁정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도량에 앉아 아녹다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²²⁾라 한다.

『법화현의』에서도 화엄 돈교가 낮은 근기의 소인은 감당할 수 없어서 바라나시로 나아가[趣波羅柰] 방편으로 점교를 베풀었다고 하여 다음과

城不遠 坐於道場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20) 蒙潤集, 『四敎儀集註』卷第一(1978) 『佛敎大系』, 164. “此顯雙垂 兩相二始 同時也”.

21) 蒙潤集, 『四敎儀集註』 위의 책, 165. “舍那勝應尊特 智定莊嚴故 譬珍御丈六 劣應生身 忍生法惱故 譬弊垢盖法 譬雙明也”

22) 『妙法蓮華經』第五「如來壽量品」第十六16(T9, 42b). “今釋迦牟尼佛 出釋氏宮 去伽耶城不遠 坐於道場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교(大敎)로 소인(小人)을 상대하는 것은 마치 귀머거리 같고 병어리 같으니 자기 지혜의 부분이 아니어서 행이 범부의 지위에 있고 전부 나오는 것이 유미와 같다. 이러한 뜻으로 돈교가 처음에 있고, 또한 제호라 하며 또한 유미라 하니 그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점교를 연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본래 대승으로써 중생을 제도할 것을 해아려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는 방편을 생각해내어 바라나(波羅柰)로 나아가서 일승도를 분별하여 삼승으로 설하였다. 이것이 곧 삼장교를 연 것이다. 그 무량한 신덕(神德)을 숨기고 이와 같은 점교의 교화를 편 것은 비단 석가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의 여러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다.²³⁾

여기서 주의깊게 보는 것은 부처님이 적멸도량에서 정각을 이루고, 그 대로 중생에게 대교를 베풀었을 때 뛰어난 근기는 교화가 가능했지만 낮은 점근기는 감당할 수 없어서, 마침내 부처님이 방편으로 점교를 생각해내고(尋思方便) 바라나시로 나아가 법륜을 굴리는 전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곧 오시의 설법이 일체중생을 다 일불승 불도로 인도하기 위해 방편을 열어 진실을 드러낸다는 출세본회(出世本懷)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돈교로써 화엄시가 베풀어지고, 이후 녹원시·방등시·반야시의 방편설법이 베풀어져서 마침내 법화열반의 진실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법화시 설법에서는 이러한 부처님 출세본회를 밝힘으로써 유행 설법의 본지가 드러내고 있다. 또한 화엄부 경전, 아함부 경전, 방등부 경전, 반야부 경전, 법화열반부 경전의 오시 설법은 석가불뿐만 아니라 삼세 제불이 같은 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법화경 제불도동(諸佛道同)의

23) 『法華玄義』卷第十上(T33, 807b). “大敎擬小, 如聾如瘖, 非己智分, 行在凡地, 全生如乳. 以此義故, 頓敎在初, 亦名醍醐, 亦名為乳. 其意可見也. 次開漸者, 佛本以大乘擬度眾生, 其不堪者, 尋思方便, 趣波羅柰, 於一乘道分別說三, 即是開三藏敎也. 非但釋迦隱其無量神德作斯漸化, 過現諸佛亦復如是. 如前所引, 當知初頓之後, 次開於漸.”

사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역사적인 석가불의 설법에 의한 경전 성립사와는 차이가 있지만, 부처님의 일대의 설법이 정각을 이루고 열반에 들 때까지 유행 설법이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그런데 후대에 가면 이러한 오시의 설법이 역사적인 부처님 유행 설법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오시(五時)의 설법을 중국 주(周) 소왕(昭王)대에 배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곧 부처가 구원겁전 성불하였으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응화한다고 하여 부처 본적을 밝히고[明本迹], 도솔천에서 내려오며[下兜率], 모태에 탁태한다[託母胎]. 여기서 탄생을 보임[示降生]은 주 소왕16, 출가[出家]를 50년, 불도를 이룸[成佛道]을 주 목왕(穆王) 4년이라 하고 있다. 전법륜의 연대는 제1화엄시부터 제5 법화열반시까지 배대하는데, 제1화엄시는 정각을 이루고 3.7일 동안 사유하였으므로 주목왕 4년이요²⁵⁾, 제1 녹원시는 5년, 제3방등시는 16년, 제4 반야시는 24년, 제5 법화열반시는 46년으로 배대하였다. 다시 녹원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4) 아함경류에서도 다음과 같이 12년 유행 설법으로 밝히고 있다. 『佛說十二遊經』(T4, 147a-b). “佛以二十九出家, 以三十五得道, 從四月八日至七月十五日, 坐樹下, 為一年. 二年, 於鹿野園中, 為阿若拘隣等說法; 復為畢婆般等說法; 復為迦者羅等十七人說法; 復為大才長者及二才念優婆夷說法; 復為正念尼捷說法; 復為提和竭羅佛時四十二人說法. 三年, 為鬱、為迦葉兄弟三人說法, 滿千比丘. 四年, 象頭山上為龍鬼神說法. 五年, 於竹園中為私呵味說法. 五年去未至舍衛時, 舍利弗作婆羅門, 有百二十五弟子, 坐一樹下. ……六年, 須達與太子祇陀共為佛作精舍, 作十二佛圖寺, 七十二講堂, 三千六百間屋, 五百樓閣. 七年, 拘耶尼國, 為婆陀和菩薩等八人說《般舟經》. 八年, 在柳山中, 為屯真陀羅王弟說法. 九年, 穢澤中, 為陀崛摩說法. 十年, 還摩竭國, 為佛迦沙王說法. 十一年, 恐懼樹下, 為彌勒說本起. 十二年, 還父王國, 為釋氏精廬——去城八十里——為差摩竭說法; 還國為父王及釋迦種說法, 度八萬四千人得須陀洹道. 是十四國, 佛十二年於中遊化說法.”

25) 『佛祖統紀』卷第三十四「法運通塞志」第十七之一(T49, 326b). “第一華嚴時. 於菩提道場初說華嚴. 於三七日中思惟如是事. 此謂如來最初說頓. 約部為頓. 約教為兼別說圓. 如日初出先照高山. 又為從牛出乳(三七日說名寂場華嚴).”

(주 목왕) 5년 제2 녹원시에서는 여래가 돈교를 설하여 홀로 대승의 근기를 제도하였으나 성문은 그 자리에 있어도 귀머거리와 병어리와 같았다. 이에 대승을 쉬고 소승에게 베풀기 위해 적멸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녹야원으로 가서 교진여 등 다섯 사람을 위하여 삼장교의 4아함경을 설하였다. 때로 보면 곧 다음의 유곡을 비춤이고, 맛으로 보면 곧 우유에서 낙소가 나옴이다(녹원설 12년)²⁶⁾

부처님이 실제적인 전법륜이 시작된 녹원시는 화엄시에서 대승의 근기를 교화하였고, 성문 등의 소인을 위해 대승을 쉬고 소승을 베풀기 위해 녹야원으로 가서 아야교진여 등 다섯 사람을 위해 삼장교의 사부 아함을 12년 동안 설했다고 한다. 여기서는 『천태사교의』에서 보이는 부(部)·시(時)·미(味)에 의한 설법에서 나아가 설법한 연대와 설법 기간을 배대하여 그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시의 유행설법은 제일 화엄시의 3.7일 사유 설법후, 녹야원으로 가 12년에 걸쳐서 4부 아함경을 설하고(녹원시), 다음은 방등부 경전을 8년에 걸쳐서 설하며(방등시), 600부 반야부 경전을 22년간 설하고(반야시), 끝으로 법화부 경전 8년 열반부 하루 저녁을 설하였다(법화열반시)고 하여, 이른바 오시설법의 계승²⁷⁾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천태 오시교판의 오시(五時)는 부처가 정각을 이루고 돈교와 점교를 거쳐 원교로 인도하는 일대성교(一代聖敎)이다. 오시교판에서 부처는 중생의 근기와 성품에 따라 적멸도량으로부터 유행을 시작하여 녹야원에 걸어가서 초전법륜을 굴리고 영축산을 거쳐 꾸시나agara에서 열반에 이를 때까지 부처로서의 일대(一代) 유행(遊行) 설법(說法)이라고 할 수 있다.

26) 『佛祖統紀』卷第三十四(T49, 326b). “五年第二鹿苑時。為如來說頓獨被大機。聲聞在座狀若蠶。於是寢大施小。不動寂場而遊鹿苑。為憍陳如五人。但說三藏教四阿含等經(憍陳如此云火器。阿含此云無比法。有長中雜增一四者之名)。約時則次照幽谷。約味則從乳出酪(鹿苑說十二年)。”

27) 『天台四教儀集註』(『永樂北藏』第189冊, 20b. “五時說法頌云, 阿含十二方等八, 二十二年般若談, 法華涅槃共八年, 華嚴最初三七日”.

2. 원돈지관(圓頓止觀) 사종삼매(四種三昧)에서의 걷기수행

법화경에서의 걷기가 법화경 교설을 비유로 표현했다면, 천태의 지관에서는 걷기가 실제적인 수행법에 사용되었다.

인도불교 이후 제 경론에 설해지고 있는 선정 삼매는 『차제선문』에서 일단 정리하였고, 지이는 이러한 일체의 선정 삼매법을 원돈지관의 삼매행법으로 닦도록 하였다. 이른 바, ‘상좌삼매(常坐三昧)·상행삼매(常行三昧)·반행반좌삼매(半行半坐三昧)·비행빛나삼매(非行非坐三昧)’의 네가지 범주로 통합하여 사종삼매(四種三昧)라고 한다. 네 가지 수행방법은 중생의 3업과 이중에서 신업의 4위의(威義)에 제재(制裁)를 두어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지켜 삼매를 얻게 한 것이다.

신업의 4위의는 항상 도량을 돌면서 염불송을 하는 상행삼매(常行三昧), 항상 앉아서 선정 삼매를 닦는 상좌삼매(常坐三昧), 이 두 가지를 번갈아 행하는 반행반좌삼매(半行半坐三昧), 상행 상좌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선(善)·악(惡)·무기(無記)를 대상으로 관찰하여 닦는 비행비좌삼매(非行非坐三昧, 혹은 수자의삼매) 수행법이다. 따라서 사종삼매는 일종의 “걷기 수행”의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 있다.

『원돈지관(圓頓止觀)』은 천태관문의 삼종지관중에서 가장 천태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수행문이다. 지의대사(智顓大師)는 화정봉(華頂峰)에서 일실제(一實諦)를 39세 증득하고, 이후 법화경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천태 원교의 독자적 교학체계를 확립시켜 마침내 『마하지관』을 완성하였다. 여기서의 불교 전체의 수행방법을 지관의 이념에 통일시켜서 법화원교의 실천 법문으로 완성한 것이다. 원돈지관은 『마하지관(摩訶止觀)』 10권(상하)에 정리되어 있다. 천태대사가 형주 옥천사(玉泉寺)에서 설법한 것을 관정(灌頂)이 기록하였다. 원돈지관의 수행법문은 수행 위기에 따라 분류한 사종삼매수행법이 있고, 실제적인 실상정관 법문은 십승

관법(十乘觀法)으로 십경계(十境界)를 관하도록 하고 있다.

일찍이 천태종의 수선사 교단에서도 대중들은 누구나 매일 6시의 예불을 하고 4시의 좌선을 수행하며, 여기서 수행이 완만하여 미흡하다고 여긴 사람은 별도의 도량에서 별행의 사종삼매로 참회행을 부지런히 닦도록 하였으므로 별량참회(입제법 제4조)²⁸⁾라고 하였다.

『마하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종삼매를 밝히고 있다.

무릇 묘위에 오르려고 한다면 행에 의하지 않으면 오르지 못하고, 잘 이해해서 찬요(鑽搖)하면 제호를 얻는다. 법화에 말하기를 ‘다시 불자여 여러가지 행을 닦고 이로써 불도를 구하는 것을 본다’고, 행법은 많이 있지만 줄여서 넷으로 말한다. 첫째는 상좌, 둘째는 상행, 셋째는 반행반좌, 넷째는 비행비좌이다. 통털어 삼매라고 칭하는 것은 조직정(調直定)이다. 때문에 말하기를 ‘잘 마음을 한곳에 주하여 움직이지 않아야 이것을 삼매라고 이른다’고, 법계는 이 한 곳이다. 정과는 능히 주해서 움직이지 않고 4행을 연(緣)으로 해서 마음을 관하며 연을 빌려서 조직한다. 그러므로 통털어 삼매라고 한다.²⁹⁾

불전의 삼매를 네 가지로 한정하는 것은 신체의 위의를 네 가지로 생각해서 사구분별(四句分別)함으로써 설정된 것이다. 내용적으로 말하면 네 가지에 한정하지 않고 특히 원교의 삼매로서 초기 수행과정에서 자신이 실천해보았던 대표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네 가지로 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수방법에 대해서 신·구·의의 삼업에 대해 신업의 열고(開)와 닫음(遮), 구업의 설하고(說)과 침묵함(默), 의업의 그침(止)과 관찰(觀)로 나누어 어떻게 지관(止觀)이 이루어지는지 신체적 행위로 제시하고 있다. 곧 사종삼매는 세 가지 행위 귀범에 의한 삼매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강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좌삼매(常坐三昧)는 『문수사리소설반야경』(2권)과 『문수사

28) 『國清百錄』卷第一「立制法」第4四(T46, 793c).

29) 『摩訶止觀』卷二之上(T46, 11上).

리문경』(2권)의 두 반야경에 나오는 데(그 외에 『대지도론』) 행법으로 볼 때 일행삼매로서 좌선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 수행은 조용한 곳을 잡아 90일을 기한으로 몸을 결가부좌를 하고 오로지 단정히 유지한다. 항상 바르게 하다가 졸음이나 질병 피로 등이 오면 한 분 부처님 명호를 칭명하는 것³⁰⁾이 허락되고 송경 송주도 불허한다. 마음은 일체의 망상분별을 물리치고 법계를 연하며 정념으로 관하는 것인데 菩提와 罪魔의 실상을 관하여 법성진여의 이치를 체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행삼매에 들어가면 눈앞에 부처님을 뵈고 보살의 계위에 오른다고 한다.

둘째, 상행삼매(常行三昧)는 『반주삼매경』(3권본과 1권본)이 인용되는데(그밖에 『十住毘婆沙論』 등) 행도요선(行道繞旋)이 주된 행법이며 90일을 기한으로 수행한다. 몸을 깨끗이하고 훌륭한 스승을 구하여 안팎을 율법을 잘 지키고 쉬임없이 걸으면서 오직 ‘아미타불’ 부르고 생각도 떠나지 않는다. 아미타불의 불국토와 32상호를 순역(順逆)으로 염하며 색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본래 공하다는 것을 관한다. 마음과 불이 본래 평등하다고 관하게 되며 색신불과 법신불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불입삼매(佛立三昧, 곧 般舟三昧)를 얻는다. 상좌삼매와 상행삼매법의 행체계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좌삼매와 상행삼매 수행체계>

	상좌삼매	상행삼매
법의입장	일행삼매	반주(佛立)삼매 : 시방의 현재불이 서 있음.
증거 경전	문수사리소설반야경 2권 문수사리문경 2권, 대지도론	반주삼매경 3권, 반주삼매경 1권 십주비바사론
본존	1불을 정하되, 특정 부처님을	아미타불(법문의 주)

30) 경에 국한해서 서방정토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애가 일어나면 전념으로 일불을 부르는데 諸教에 의하여 서방정토 미타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止觀輔行傳弘決』 卷第二之一(T46, 182c)

		정하지 않음.	
장소 수행참가자		소요한 방. 한가한 장소 대중과 함께 앉는다.	도량 주위를 정리 혼자 치하여 수행
기간		90일을 1기로 한다.	90일을 1기로 한다.
친근해야 할 스승		반야를 이해한 자	내외의 율에 밝은 자
수행집		별도의 수행집 없음	별도의 수행집 없음
방 법	신업 (開遮)	개: 항상 결가부좌 목과 등을 곧바로 함. (경행 식사 용변은 제외) 차: 움직이지도 흔들지도 않고 늘어지거나 기대지 않음	개: 항상 목욕하고 좌우출입, 옷을 갈 아입음 항상 도량을 돌면서 행도한다. (앉아 식사할 때와 출입할 때는 제외) 차: 앉아 있고 눕는 것을 체한.
	구업 (說默)	묵: 묵언을 바른 수행으로 한다. 설: 피로 질병 수면 등 내외의 장애가 오면 한 부처님의 명호 를 불러서 장애를 물리침.	설: 90일 동안 항상 소리 내어 걸음걸 음 생각 생각마다 아미타불을 부르기 를 그치지 않는다. 염과 부르는 것은 함 께 전후순서가 달라도 된다.
	의업 (止觀)	지: 일체의 망상분별을 그치 고 없앴(오로지 연을 법계에 매어놓는다) 관: 단좌해서 정념(바른 생각) 을 법계에 일치시킨다. 제법실 상의 이치를 관해서 법성진여 의 이치를 증득한다.	지: 미타의 32상 보배 땅 연못 나무집 의 법을 설하는 불을 염한다. 또 그 부 처님의 천복륜부터 정상의 육계까지 염한다. 관: 부처님은 몸과 마음이 이미 다하여 심신으로부터 이를 수 없다(공), 소유 법은 마음으로 생긴 임시(가), 마음이 곧 불심(중)
수행 권한		일체 제불의 불법 상호 위의 설법 음성 십력 무소외를 얻고 자 한다면 일행삼매를 닦는다.	이삼매는 제불의 어머니 불안 불부 무 생대비의 어머니가 된다. 일체 모든 여 래는 이 두 법에서 생긴다.

셋째, 반행반좌삼매는 방등삼매와 법화삼매의 둘이 있는데 좌선과 행도를 겸하는 행법이다. 먼저 방등삼매를 보면 『방등다라니경(4권)』에 기초하여 설정되었던 행법이다.(그밖에 『大品』 『涅槃』 『瓔珞經』 등이 인용된다) 24존상을 모시고 도량을 마련하고 7일을 기한으로 수행 한다. 다라니주(摩訶袒持陀羅尼) 한 편을 독송한 다음 삼보·시불(十佛)·방등·부모·법왕자를 소청한다.³¹⁾ 예불공양이 끝나면 지성으로 죄와 허물을 말하

여 뇌우치고 일어나 120번 돌며 주(呪)를 한다. 이어 예배하고 물러나 앉아 사유하는 것을 반복한다. 사참(事懺)은 고도(苦道)와 업도(業道) 참회하고, 이참(理懺)은 번뇌도를 참회한다. 7일에 이르러 시방의 부처님을 보고 불퇴전을 얻으면 번뇌도를 참하는 것이다. 실상을 사유하면 이것을 파하게 된다.

다음 반행반좌삼매로서의 법화삼매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지의가 법화삼매를 반행반좌삼매로 규정한 것은 행도 선요(旋繞)를 하고 자리에 돌아와 일실경계를 정관하는 좌선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하지관』에서 방등삼매와 함께 반행반좌삼매로 편입한 것이다. 그 근거는 『묘법연화경』의 「보현보살본사품」에서 “이 사람이 걷거나 서 있으면서[若行若立] 이 경을 독송한다면 제가 그때 육아백상왕을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그곳에 이르며, …이 사람이 만약 앉아서 이 경의 도리를 사유한다면[是人若坐 思惟此經] 다시 백상왕을 타고 그 사람 앞에 나뉜다”³²⁾라고 하여 걸으면서 독송하고 앉아서 실상경계를 사유한 것에서 온 것이다.

법화경에서 지의는 『마하지관』에서 이 삼매는 『법화경』을 주로 하여 이루어진 행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수행방법은 몸의 개·차, 입의 설·묵 뜻의 지·관으로 하는 것은 다른 삼매법과 같으며 그 행법을 10법으로 들고 있다. 첫째는 도량을 장엄하고 둘째 몸을 청정히 하며, 셋째 삼업공양하며, 넷째 청불, 다섯째 예불, 여섯째 육근참회, 일곱째 요신, 여덟째 송경, 아홉째 좌선, 열째 증득한 모습이다. 이상으로 볼 때 『참의』와 비교하면 『참

31) 지의는 『方等陀羅尼經』에 기초한 『方等三昧行法』을 저술하고, 『國清百錄』의 『方等懺法』을 저술한 다음 『摩訶止觀』에 半行半坐三昧로 귀속시켰다. 『摩訶止觀』에서 “召請法은 『國清百錄』(T46, 798中)에 있다고 한 것은 『方等懺法』을 말하는 것이다.

32) 『妙法蓮華經』 「普賢菩薩勸發品」 第二十八(T9, 61a). “是人若行、若立、讀誦此經、我爾時乘六牙白象王、與大菩薩眾俱詣其所、而自現身、供養守護、安慰其心、亦為供養法華經故。是人若坐、思惟此經、爾時我復乘白象王現其人前、其人若於法華經有所忘失一句一偈、我當教之、與共讀誦、還令通利。

의』에서의 정수행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참의』의 찬탄삼보가 빠진 대신 정수행 다음 단계에 있는 약명수증 제오(略明修證 第五)가 정수행 안으로 들어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하지관』에서 별도의 『법화삼매』 1권이 있다고 한 것은 『법화삼매참의』를 말한다. 법화삼매참의에서 걷기의 행도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8. 행도법을 밝힌다.

[해설] 수행자는 이미 예불을 마쳤으면 한 마음으로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서서 오른쪽으로 법좌를 돌면서 향 사르고 꽃을 뿌린다. 엄숙하고 점잖게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으로 삼보를 염송한다. 차례로 세 번 부른다.

[원문]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법 나무시방승 나무석가모니불 나무다보불 나무석가모니분신불 나무묘법연화경 나무문수사리보살 나무보현보살

[해설] 이와 같이 제불보살마하살의 명호를 부르고 나서 경을 송하는 데 경을 송하는 법은 아래에 자세히 밝힌다. 수행자는 경을 송하는 음성의 성품이 공함을 완전히 깨달아 알 뿐 아니라, 심신도 구름같고 그림자 같아서 걸을 때에도 마음에 얻는 것이 없고, 수행의 모습에도 주함이 없다고 안다. 또한 이 몸이 시방에 모습을 나타내어 법계에 꼭 차 있고 널리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서 제불을 둘러싸고 있다고 안다. 이와 같이하여 도는 것은 세번 일곱번 삼칠 칠칠 백번 정해진 수가 없으니 스스로 집착하여 양을 정한다. 만약 행도를 마치고자 하면, 앞에 든 삼보의 명호를 다시 부른 다음 향 사르고 바른 생각으로 법패를 불러 찬탄한다. 법패 찬탄을 마치고는 본래 예불하던 곳으로 돌아간다. 끝으로 삼보께 귀의는 한 마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입으로 소리내어 부른다.³³⁾

33) 『法華三昧懺儀(法華三昧行事運想補助儀禮法華經儀式)』(T46, 953c). “第八明行道法(行者既禮佛竟, 當一心正身威儀。右遶法座燒香散華。安序徐步。心念三寶。次第三遍稱)南無十方佛。南無十方法。南無十方僧。南無釋迦牟尼佛。南無多寶佛。南無釋迦牟尼分身佛。南無妙法蓮華經。南無文殊師利菩薩。南無普賢菩薩(如是稱諸佛菩薩摩訶薩名字。即當誦經誦經之法在下廣明。行者非但覺了誦經音聲性空。亦當知身心如雲如影。舉足下足心無所得。不住行相。亦知此身影現十方充滿法界。無不普現。圍遶諸佛。如是旋遶三匝乃至七匝三七匝七七匝百匝。無有定數。當自斟量。若行道欲竟。當還如前稱三寶名字。燒香正念作契唄。

이와 같이 『법화삼매삼의』는 반행반좌삼매로써 법화삼매의 걷기수행을 보이고 있다. 곧 법화경을 모신 단을 중심으로 걸으면서 도는데 경을 송하는 것이다. 『관심론소』에서도 반행반좌의 걷기수행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⁴⁾고 밝히고 있다.

『반행반좌삼매의 수행체계를 도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반행반좌삼매의 수행체계>

신의(身儀)		반행반좌삼매	
법(法)	방등삼매	법화삼매	
경증(經證)이 되는 경전	반등다라니경 4권 및 대품 열반 영락경등을 인용	법화경 안락행품 보현보살권발품, 보현관경 등을 인용	
별행본	방등삼매행법 방등참법	법화삼매참의	
장소, 참여인	조용한 곳, 10인 이하	조용한 곳, 인원 언급 없음	
친근할 스승	1인의 내외의 율에 밝은 자		
본존	24존상: 十佛 십왕자 화취보살(華聚菩薩) 뢰음비구(雷音比丘) 다라니 사리불(삼보 방등 부모)	법화경 1부	
수행기간	7일을 1기로 함	3.7일(21일)을 1기로 함	
수행 방법	신업	개: 도량장엄 7일 장재(長齋) 목욕. 삼업공양, 스승공양, 반행반좌수행, 선요 120집한 앉아서 사유. 차: 주와(住臥)	개: <u>걸으면서(행) 앉아서(좌) 송지 사유한다.</u> 엄정도량. 정신, 삼업공양, 청불, 예배, 육근참회, 요선, 송경, 좌선, 證相 차: 주와
	구업	살: 다라니주독송 삼보 十佛 방등 부모 십왕자를 소청	살: 예불 찬탄 발로 참회 송경 묵: 실상정관
	의업	마하단지다라니를 사유정관. 순역의 12인연을 관함 수행 중에 사의(事儀)를 살피고 자기의 행리(行	유상무상의 이사관을 이루고 역사수관(歷事修觀)한다

唄竟至本禮佛處。歸依三寶一心正念。當口自唱言。”

34) 『觀心論疏』(T46, 602b). “法華云。若行若坐讀誦是經。若坐思惟是經。我乘六牙白象。現其人前。故知二經半行半坐為方法也。”

		理)를 비춘어본다. 이참(理懺) 사참(事懺)	
수행을 권한		제불의 득도는 모두 이 법에 의함 이것이 제불의 부모가 되고, 세간무상(世間無上)의 대보(大寶)가 된다	『보현관경』의 경문 열거: 이 경의 무량한 위신공덕력 보살정위 들어가려는 자.

넷째, 비행비좌삼매(非行非坐三昧)는 『청관음경』에 의해서 설해진 것이다. 행도 좌선 뿐만 아니라 일체에 통하는 행법으로 수자의삼매 각의삼매를 얻는 행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삼매 인용경론으로 보면 『청관음경』 이외에도 『법화경』·『대품경』·『대집경』·『허공장경』·『앙굴마라경』·『수릉엄삼매경』·『열반경』·『아함경』·『유마경』·『대지도론』 등의 제경론을 경증으로 설정하고 있다. 비행비좌삼매의 뜻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위에서는 치우쳐서 행·좌를 쓰는 것이다. 여기서는 위와는 다르고 사구를 이루기 때문에 비행비좌라 이름한다. 실은 견고 앉기 및 일체의 일에 통한다.³⁵⁾

라고 선정의 전체를 사구분별한 것에 기초해서 이름이 있고, 실제의 몸의 위의를 행·주·좌와·언·작 등의 일체에 통하여 자유롭다고 하므로, 혜사의 『수자의삼매』와 지의의 『각의삼매』 등도 이 삼매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혜사의 『수자의삼매』의 「육위의품」에 삼매발득의 방법이 실시되어 있는 것을 모범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인 비행비좌삼매로 닦는 청관음행법과 삼성관(三性觀)을 보면, 청관음행법은 미타·관음·세지를 청하여 예불하고 소향 산화 등을 하며 주(呪)와 좌선을 행하는 것이다. 제선·제약·제무기(諸無記)를 때와 장소

35) 『摩訶止觀』卷第二上(T46, 14b), “上一向用行坐。此既異上。為成四句故名非行非坐。實通行坐及一切事”。

에 따라 지관의 대상으로 하는 행법이다. 갖가지 선을 경계로하여 육바라밀을 행하고 자신의 마음을 미념(未念)·욕념(欲念)·념(念)·념이(念已)의 넷으로 분별하여 하나하나 검토한다. 주하고 집착하지 않는 지혜로 관하여 탐착이 일어나지 않고 본래 공한 것을 깨달으며 육바라밀 하나하나가 전체를 구축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제악에 대해서는 앞에와 같이 네 가지로 분별하여 검토하고 공한 것을 깨달아 마치면 번뇌는 곧 보리의 이치를 증득한다고 한다. 비악비선도 앞에서와 같이 수행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중삼매의 수행에는 상행삼매와 반행반좌삼매, 그리고 비행비좌에서 걷기 수행이 들어 있어서, 사중삼매에서 걷기수행은 매우 중요한 위의(威儀)라고 할 수 있다.

IV. 결어

이 글은 법화·천태학에서의 걷기에 관한 전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법화경에서는 삼주설법에서 비유설에서 걷기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비유설은 법화경 법설에 대한 비유로 부처님의 교화설법을 다양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비유로 풀어설한 것으로 부처의 유행설법을 비유한 것이다. 걷기는 이러한 유행설법을 때로는 장자(長者) 인도자(導師)로 등장하여 이루어진다.

장자 궁자 비유는 궁자인 중생을 다섯 번에 걸쳐 유행하며 제도한다고 하여 천태는 오시교판의 근본으로 삼았다. 또한 화성유품은 보배성으로 대중을 인도하는 도사가 되어 중생들을 불도로 인도하는 유행설법임을 보여준다.

천태의 교문과 관문에서는 법화경을 기반으로 오시교판과 법화의 원교실천으로 원돈지관의 사중삼매에서 그 전거를 찾을 수 있다.

교문의 오시교판은 불교의 대소승 교학을 부처님의 일대성교(一代聖敎)로 보아, 적멸도량에서 정각을 이루고 열반에 들 때 까지 다섯때로 나누어 오시(五時)의 유행설법이라 하였다. 이러한 오시의 설법은 경전편찬사와는 다른 교법의 분류이지만, 중생의 욕망과 근기에 맞추어 설한 응신(應身) 부처님 일대교설로 이해함으로써 일대의 유행설법으로 이해한 것이다. 후대에는 5시설법 계승이나 역사적 사실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사중삼매에서는 상행삼매법에서 염불하면서 걸어서 본존을 도는 수행에서 걷기가 중요한 삼매행법으로 수용되었고, 반행반좌에서는 주송하면서 도는 방등삼매와 경을 독송하면서 경단(經壇)을 도는 법화삼매가 있어서 역시 걷기가 수용되었다. 이밖에 비행비좌삼매법에도 행도(行道) 좌선(坐禪) 뿐만 아니라 일체에 통하는 행법으로 걷기가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중삼매법에는 상좌삼매법을 제외한 3가지 삼매법에 모두 걷기수행을 포함하고 있어서, 원돈의 실상을 깨닫는 수행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 『佛說十二遊經』, T4,
『妙法蓮華經』卷第二「信解品」第四, T9.
『妙法蓮華經』卷第三「化城喻品」第七, T9.
『妙法蓮華經』第五「如來壽量品」第十六, T9.
『妙法蓮華經』「普賢菩薩勸發品」第二十八, T9.
『妙法蓮華經玄義』卷第十下, T33.
法雲, 『法華經義記』卷第五, T33.
『法華義記』卷第七, T33.
『妙法蓮華經玄義』卷第十下, T33.
『法華文句』卷第六上, T34.
『妙法蓮華經文句』卷第七上, T34.
『摩訶止觀』卷二上, T46.
『法華三昧懺儀(法華三昧行事運想補助儀禮法華經儀式)』, T46.
『止觀輔行傳弘決』卷第二之一, T46.
『觀心論疏』, T46.
『國清百錄』題百錄後序, T46.
『國清百錄』卷第1 立制法 제4, T46.
諦觀錄, 『天台四教儀』, T46.
『佛祖統紀』卷第三十四「法運通塞志」第十七之一, T46.
『國清百錄』卷第一「立制法」第4四, T46.
『天台四教儀集註』『永樂北藏』第189冊.
天台智者 述, 李元燮 譯(1997), 『法華文句』 하권, 서울:영산법화사출판부.
蒙潤集(1978), 『四教儀集註』卷第一, 『佛教大系』, 東京:山中印刷所.

■ Abstract

**Travel preaching and Walking in the context of Lotus Sutra
and Tientai School:**

With a focus on literature sources

Lee, Ki-Woon(Ven. Yeong-Sin)

This study aimed to reveal the sources within the literature (典據) regarding the role of walking, as it appears in the context of the Lotus Sutra and the Tientai School.

In the Lotus Sutra, a passage on walking can be found in the three stages of preaching (三周說法) and in the chapter on parables (譬喻說). The chapter on parables is composed of various analogies on the teachings of Buddha that are in accordance with the people's characters and abilities. In this, Buddha appears in the form of a Buddhist elder (長者), or a leader (導師), to teach the pupils while walking and preaching. Walking can be found in such a practice of teaching while Travel preaching. First, in the parable of the rich and the poor (長者窮子喻), Tientai was considered to be the foundation of the teachings via five periods (五時教判), as the rich guided the poor in five different time periods while walking. In addition, in the parable of metamorphosis, walking while teaching is shown as the leader (大導師) and guides the public toward the cherished castle and the road to Buddhism that is approximately five hundred distances away.

Tientai is composed out of both the doctrinal method (教門) and the

practice method (觀門), and addresses the teaching and practice methodologies, which are based on walking, in the five periods of the doctrine. Furthermore, they concern the complete and spontaneous tranquility and insight (圓頓止觀) garnered via the four ways of samadhi (四種三昧).

In the five periods (五時) appearing in the doctrine, the doctrine of greater and smaller vehicles of Buddhism is seen as Buddha's lifetime sacred teachings. Until the true awakening (正覺) was achieved at the spot of perfect serenity (寂滅道場) and Nirvana (涅槃) was attained at Kushi Nagar, the timelines were divided into five periods and taught while walking. In the latter generation, such actions were construed as a historical fact, or were specified as being part of Buddha's lifelong teachings.

In the practice method of four ways of samadhi, walking was accepted as an important way of meditation in the practice of walking around the main Buddha hall while chanting a Buddhist prayer in the samadhi of immediate presence of Buddha (常行三昧法). Furthermore, in the half-moving half-sitting samadhi of immediate presence of Buddha (半行半坐三昧法), walking was also accepted as expansive and upright samadhi (方等三昧), while chanting (呪誦) and walking around, the lotus samadhi (法華三昧法) of reciting Dharma and Sutras, and walking around the tower were all introduced. Walking is also accepted as a universal way of engaging in samadhi without moving or sitting (非行非坐三昧法), in addition to moving meditation (行道), and sitting meditation (坐禪). Therefore, in the four ways of meditation, all three ways, other than practice samadhi, use walking as a means of realizing the status of perfect and immediate (常坐三昧法).

Keywords ● Travel preaching, Walking, Tientai School, the five periods (五時),
the samadhi of immediate.

▮ 논문투고일 : 2021. 12. 3 ▮ 심사완료일 : 2021. 12. 15 ▮ 게재확정일 : 2021. 12. 20